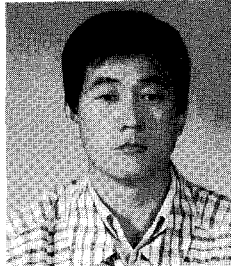


## 채란업 발전을 위한 전문 위원회 구성 필요

**지**난 2000년 한해는 필자가 30년 양계업을 경영해온 가운데 가장 어려운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이는 생산비 이하의 계란 가격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IMF관리체제 때 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초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 국내 경제여건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뉴스가 매스컴을 통해 흘러나오고, 우리가 먹는 농산물의 절반을 수출하고 있는 중국이 곧 WTO에 가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2001년도의 양계경기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또한 2000년에 극성을 부린 ND가 아직 수그러들 줄을 모르고 1992년부터 채란농가를 괴롭혀온 가금티푸스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등 계란 과잉생산과 더불어 채란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상황이 어렵게 전개되면서 2001년을 맞이하는 기쁨보다는 불안감이 앞서고 있다. 그렇다고 이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는 일이다. 따라서 2001년도 채란업 발전을 위해 몇가지 개인적인 바램과 대안을 제시코자 한다.



송복근  
(무궁화 농장 대표)

### 1. 채란업 관련 소위원회 활성화

현재 양계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란업 발전을 위한 소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인 체계로 발전, 유지시켜 모든 양계인이 참여하여 채란업

당면문제를 해결해 가는 기구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1) 정책개발 소위원회

이 부분은 현재 대한양계협회 내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채란업 발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종계·부화업계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병아리 및 채란계 수수 조절 운동을 활성화함은 물론 대정부 건의안들을 종합, 보고하는 곳으로 활용하였으면 한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채란인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생산수수조절을 통한 채란업의 안정을 기하자는 것으로 금년에 실시될 예정에 있는 계란 등급제에 대한 우리 양계인들이 대처해야 할 방안 등 양계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 2)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위원회

이 위원회에서는 주로 양계산업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부분을 연구하여 회원에게 홍보하는 위원회로 활용했으면 한다.

즉,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계기술이나 정보 등을 발굴하여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예로 양계장에서 골치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계분문제를 유기질 비료화하여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양계장의 수입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근본적인 질병대처 방법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등 우리가 풀어가야 할 현안문제들은 무궁무진할 것이다.

## 3) 자조금 거출 소위원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리 산업을 스스로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가 생산한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소비창출을 기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된다.

과거 1970년대에는 계란을 생산하면 판로는 걱정을 안했던 것을 많은 양계인들은 기억할 것이다. 당시에는 양계장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도 계란소비가 뒤따라 주었기 때문에 양계산업이 우리 축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1990년 이후부터 계란소비량이 1년에 1인당 200개에도 못미치는 가운데 소비정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과잉현상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이러는 사이에 우리는 소, 돼지분야에 시장을 잠식당하는 신세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조금을 거출하는데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을 연구·검토하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소비확대는 물론 수급조절까지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 2. 난가정보위원회 활성화

필자도 전국계우회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난가정보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지만 어느 분야보다도 조직적으로 잘 이끌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



이 완벽할 수는 없으며 때로는 지방과 수도권간의 불협화음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며, 상인들과의 관계도 유통상인들의 불협화음으로 순탄치만은 않다.

계란유통과 관련하여 상인들이 사단법인체 및 조합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생산자들을 자극하고 있다.

그들은 표면상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상인들만의 난가고시를 적법화시켜 유통시장을 흐려 놓으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들은 몇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러한 단체를 만들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수도권과 지방이 1일 생활권에 있으며 채란인들은 모두 한 식구라는 것을 인식하고 각 지역 난가정보위원들이 서로의 단합을 통해 유기적인 협조를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통계자료와 농축협 판매 담당자들과의 의견을 보다 많이 수렴하고 상인들과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 난가를 조절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01년을 맞이하면서 화려한 설계보다는 위에서 제시한 몇가지 만이라도 실천이 되었으면 한다.

이 모든 문제들이 농림부와 관련연구단체와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생산자들도 주인 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어려운 난관에 빨리 대처해 갈 수 있는 힘을 키워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신사년(辛巳年)을 맞이하여 뱀처럼 어느 방향으로라도 구부릴 수 있는 유연함처럼 우리 양계업계도 모든일이 부드럽게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양계**

# 자동화 계사 청소

이젠, 저렴한 비용으로 영창이 책임지겠습니다.

- ① 저렴한 비용으로 계사 청소의 대중화
- ② 초고압 세척으로 질병 억제효과 (사용 압력 100~200bar)
- ③ 빠른 청소로 계사 활용율 극대화

장비임대 가능 ⇔ 자가 청소 가능 ⇔ 경비 절감

## ♣ 생산품목

- 급이 기(고르게형)
- 계분 벨트
- 집란 장치

## 영창 축산 기계

사무실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아곡리 309  
 전화 : (054)975-1301~2  
 휴대폰 : 011-9676-3722